


보도자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박경석, 박명애, 변경택, 윤종술, 최용기
전화_02-739-1420 /팩스_02-6008-5101 /메일_sadd@daum.net /홈페이지_sadd.or.kr			
수신	언론사 사회부 담당	배포일자	2019년 6월 3일(월) (사전배포용)
담당	조현수	페이지	총 3매
제목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예산확보/홍남기장관 면담 촉구 농성선포 기자회견		

장애인의 삶을 바꿀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예산은 뒷전!
등급제 폐지 이후 도입되는 종합조사표는 '조작조사표'!
홍남기 기획재정부장관 만납시다!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예산 확보!

홍남기 기획재정부장관 찾아 삼만리 농성」 선포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19년 6월 4일(화) 오전 11시. 세종문화회관 앞.
- 주최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 기자회견을 마치고 농성에 돌입합니다.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박명애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구성된 연대체입니다.(2019년 6월 4일 현재 190여개 단체)

3. 전장연은 31년만의 변화를 맞이한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시행일인 7월 1일을 30여일 앞둔 **6월 4일(화) 오전11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예산 확보! 홍남기 기획재정부장관 찾아 삼만리 농성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농성에 돌입합니다.**

4. 문재인대통령의 국민명령 1호이자 대통령 공약 사항인 ‘장애등급제 폐지’가 비로소 31년만의 변화를 맞이하는 시기가 바로 올해 7월 1일입니다. ‘장애등급제’는 장애와 장애인을 바라보는 구시대적 관점이자 의학적 손상을 이유로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수급 여부를 일방적으로 결정지었던 잘못된 제도입니다.

5. 문재인정부의 장애인정책 기조인 ‘장애인의 지역사회 완전한 통합과 참여’를 위해서는 기본생활 영역에서부터 사회서비스/노동/문화/교육 등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충분한 사회보장이 이뤄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국민총생산 대비 장애인복지예산이 OECD 평균의 4분의 1에 불과한 현실이 바꾸기 위한 예산 확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6. 이에 지난 3월 26일부터 전장연을 중심으로 한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은 홍남기 기획재정부장관 면담을 요구하였지만 홍남기 장관은 이에 답변하지 않고 있어 결국 예산은 그대로 인채 껍데기만 둔갑한 ‘가짜’ 폐지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불평등 지표가 점점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과 가족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꿔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7. 이러한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10일과 29일, 올해 7월부터 도입될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내용들을 공개하였으며, 보건복지부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에서 최중증장애인의 지원시간과 평균시간 등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등급제와 유사한 의학적 기능제한 평가 비중이 오히려 더 높아졌고, 종합조사점수 안에서 각 장애유형별 고유한 차이가 총점 안에서 경합되는 방식이라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8. 게다가 이러한 기계적이고 일방적인 판정 방식은 장애인의 환경에 대한 고려와 필요도를 반영하지 못 하는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삶의 수준과 생존의 문제까지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판정과정에서 당사자는 철저하게 소외되어 자신의 ‘무능’을 입증하는 것 이상은 할 수 없으며, 인격적인 모욕과 권위적인 조사방식에 따른 위축까지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9. 31년만의 장애등급제 폐지의 구체적인 제도적 변화의 내용이 고작 ‘장애등급제’가 둔갑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 불과하고, 그 내용이 예산은 한정지은 채 점수 안에서 장애유형별 갈등만 조장하고 있는 ‘조작’조사표나 다를 바가 없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주간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활동지원 수급자는 서비스 총량이 삭감되도록 설계하고 있어 ‘지역사회 중심 돌봄’이라는 취지가 무색하다고 할 것입니다.

10. 이에 전장연은 6월 4일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노숙농성에 돌입하고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를 위한 예산 확대의 필요성을 알리는 것과 함께, “종합조사표 상담소”를 운영하면서 이 문제를 알려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14일과 28일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 면담을 요구하는 행진을 진행하고, 7월 1일에는 전국 집중 집회로 대규모 행진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11.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예산 확보!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찾아 삼만리 농성 선포 기자회견

사회: 조현수(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조직실장)

0. 민중의례

1. 여는 발언	박명애(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2. 연대 발언	양동규(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3. 연대 발언	권정오(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4. 연대 발언	김용원(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5. 연대 발언	김윤영(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6. 닫는 발언	윤종술(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표) 최용기(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